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기범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상풍경과 시간성의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이가영

일상풍경과 시간성의 회화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권기범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이가영

인 준 서

이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매일을 반복해서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르게 보이는 때가 있다. 익숙한 공간도 갑자기 낯선 풍경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어떤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삶의 사소한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하여 쉽게 지나치는 일상에서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여 관찰하였다. 그러다 보니 유한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식의 변화와 동시에 사고의 확장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일상이란,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 집 앞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공원, 매일 같이 걷는 길 등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져 있는 주변 풍경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 본인의 시각과 태도를 관찰하였다.

반복적인 공간의 등장을 통해 시간과 시각의 변화와 그에 따라 변하는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결국에는 일상의 풍경과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의 내용이며 재현적인 풍경보다는 심상과 무의식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재료의 표현과 비현실적 풍경의 모습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까지 진행한 작품들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도시 속 자연풍경	3
2. 일상 풍경의 시간성	15
III. 결론	28

작품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흩어지는 시간, 2015,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5
- [작품 2] 부서지는 나뉘, 2015,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5
- [작품 3] 밤 풍경, 2018, 장지에 목탄, 가변크기(27x22cm, 30x21cm) 11 개 · 6
- [작품 4] 깊은 여름, 2018, 장지에 목탄, 연필, 53x45cm 7
- [작품 5] 나무의 번짐, 2018, 장지에 채색, 200×100cm 8
- [작품 6] 오후 6 시, 2018, 장지에 연필, 수묵, 30×21cm 11
- [작품 7] 시선의 끝, 2018, 장지에 연필, 수묵, 145×336cm 11
- [작품 8] 시선이 머무르는 곳, 2018, 장지에 목탄, 162×130cm 13
- [작품 9] 나무의 귀, 2018, 장지에 목탄, 130×97cm 14
- [작품 10] 하루의 하루, 2018, 장지에 채색, 162×130cm 15
- [작품 11] 낮의 길이, 2018, 장지에 채색, 130×97cm 20
- [작품 12] 되돌아보기, 2018, 장지에 채색, 130×97cm 21
- [작품 13] 성찰의 시선, 2018, 장지에 채색, 117×91cm 23
- [작품 14] 다시보기, 2018, 장지에 채색, 51×73cm 25
- [작품 15] 다시보기의 드로잉, 2018, 종이에 펜, 18×25cm 25
- [작품 16] 아홉시 오십분, 2018, 장지에 채색, 80×100cm 27

논문 개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잊거나 별 거 아닌 것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항상 변모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의미를 찾아 작업으로 옮기고 있다. 본 연구는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 속 자연의 풍경에 대한 이미지와 일상풍경과 시간성에 관해 밤과 낮의 풍경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해와 달처럼 매일 당연히 뜨고 지는 자연현상처럼 매일 보게 되어 당연하게 느껴지는 본인에게서 멀리 있지 않은 일상 풍경들의 부분들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느 순간 낯설음을 느꼈다. 빛과 시간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 속에서 대조적으로 생기는 그림자의 모습이 신기했는데 매일 보던 풍경도 다르게 느껴지게끔 하였다.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반복되며 사라져가는 풍경들 속 사소한 기억들이 모여 본인이 바라보는 일상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궁금해졌다.

매일을 반복해서 같은 공간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르게 보이는 때가 있다. 익숙한 공간도 갑자기 낯선 풍경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여 쉽게 지나치는 일상에서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여 관찰하였다. 그러다 보니 유한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식의 변화와 동시에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일상이란,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 집 앞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공원, 매일 같이 걷는 길 등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져 있는 주변 풍경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 본인의 시각과 태도를 관찰하였다. 도시라는 거대하고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자연과의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존재하는지 고찰하여 회화형식으로 조형화 하였다.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진행하며 바라본 풍경들에 대해 반복적인 공간의 등장을 통해 시간과 시각의 변화와 그에 따라 변하는 다른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결국에는 일상의 풍경과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의 내용이며 재현적인 풍경보다는 심상과 무의식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재료의 표현과 비현실적 풍경의 모습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까지 진행한 작품들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I. 서론

본 연구는 2018년의 '해와 달 사이' 석사청구전을 위해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본인이 생각하는 일상풍경과 시간성에 대해 주제 선택의 동기와 목적, 본인이 느끼고 바라보는 것을 살펴보고자 작품과 함께 정리한 내용이다.

전시의 제목인 '해와 달 사이'는 본인 작품 전반적인 주제를 언급하는 문장이다. 여기서 언급된 '해'와 '달'은 서로 번갈아 뜨고 지며 밤과 낮을 이룬다는 자연현상에 근거하는 시간성을 상징하며, 매일 보게 되어 당연하게 느껴지는 소중한 일상의 부분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사유하는 '사이'는 개념적 의미에서의 시간적 의식¹과 거리, 공간적 의식²을 동시에 뜻한다. '해와 달 사이'는 그렇게 일상에서 가까이에 있어 당연한 것들과 일상의 풍경처럼 사소한 것들에 근거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느꼈다. 그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본인에게서 멀지 않은 주변 풍경을 대상으로 삼아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쉽게 잊거나 별 거 아닌 것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항상 변모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의미를 찾아 작업으로 옮기고 있다. 자연이라는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주관이나 기교에 의하지 않고서

¹ 일상적인 의식 경험에서, 과거·현재·미래 등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 (Doopedia, 두산백과)

² 베르그손(Henri Louis Bergson)은 시간의 추이를 추상(抽象)화해서 공간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인간이 기억하는 작용에 의해 종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서 포착한 것을 공간적 시간이라 한다. 재해 현상에서는 자동차가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적 추이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표시할 때에 시간을 공간으로 변환해서 공간적 시간으로 포착해 표현한다. (네이버, 산업안전대사전, 2004.도서출판 골드)

'그것 자체로' 그와 같이 있는 현상 또는 존재자를 의미한다³. '그것 자체로'의 자연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풍경으로는 쉽게 관찰하기 어려워졌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공원이나 연못 등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이다. 무심코 넘겨버리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바라보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 반복적인 바라봄은 흘러가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본인이 풍경을 마주하는 자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였다.

논문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은 작품을 제작할 때 본인이 느낀 것과 본인작품에 영향을 준 글을 언급하며 함께 분석한다.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은 주로 2018년에 제작된 것이지만 작업들의 출발점이 된 2015년의 작업 <흘어지는 시간>을 II장 1절에서 먼저 인용한다. 일상에서 갑자기 느꼈던 작은 틈새의 비일상의 사건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중함을 깨닫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다. 그런 뒤 작업의 표현 기법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와 함께 II장 2절에서는 본인이 사유하는 '시간'의 이미지에 관해 진행하게 된 계기와 설명을 작업들과 함께 다뤄본다. 그리고 드로잉과 그를 통해 큰 작업으로 연결되는 작업들을 예시로 들어 순서대로 앞에서 보다 보완된 작업 설명을 하고자 한다.

³ 현상학적으로 바라본 '자연'의 의미 (네이버 지식백과, 현상학 사전)

II. 본론

1. 도시 속 자연풍경

시간을 들여 바라보다 보면 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는 때가 있다. 도시풍경 속 자연은 친숙하지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다. 도시의 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닌, 도시 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안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풍경이기 때문에 때론 낯설게 보이지만 그것 또한 자연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만은 않다. 도심 속 공원⁴을 예로 들면 공원은 자연을 보다 가까이서 느끼도록 조성되어 있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원의 나무와 풀과 연못은 기존의 본래 자리가 아닌 '인공적 풍경'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계속 반복하여 바라보다 보니 '공원'이라는 공간이 고유한 성질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며 자연스럽게 주변의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들에 관심을 가지며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실제적인 풍경의 모습보다는 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업으로 기록하였다.

도시는 본인이 나고 자란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여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도시는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항상 수천·수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여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⁵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다. 그러한

⁴ 공원 : 공중의 휴식과 오락, 보건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넓은 정원이나 장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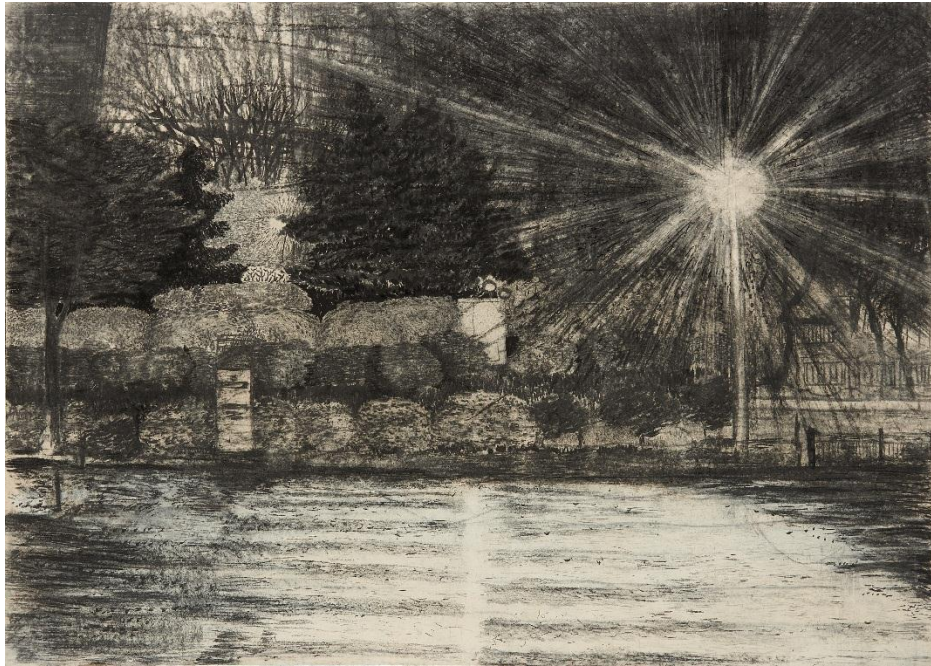
⁵ 개념용어로 '도시'의 정의를 언급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시의 공간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객관적이고 도시화된 자연인 경우가 많다. 정렬되어 있는 길가의 가로수나 일률적으로 생긴 공원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자연 공간의 도입은 친숙한 장면임에도 비일상적으로 읽히는 이중성을 가진다. 도심공간에서의 자연은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낯설게 다가오는데, 현대인의 삶의 기반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도시공간이기 때문이다."⁶ 도시 속의 자연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비슷한 문장들을 인용한다.

본인의 작품 <흠어지는 시간>은 목탄으로 그린 일상 풍경의 모습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가는 초록불로 바뀌는 때를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언제나와 다를 바 없던 집 앞의 길에서 건너갈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었는데 갑자기 그 찰나의 순간이 낯설게만 느껴지며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신호등은 영원히 빨간 불인 채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다. 주변에 있던 사람은 본인 밖에 없어서 이상했던 느낌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는 없었지만 매일 보던 집 앞 풍경임에도 몇 초 동안 느낀 그 생경함은 그 때 이후로 다시 같은 곳에서 느낄 수 없었다. 그 날은 워낙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뒤였고, 본인도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에 다른 일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있었던 때였다. 그 날 이후로는 같은 길을 걸어도 낯선 느낌과 함께 생경했던 감정이 떠올랐다. 때로는 그렇게 매일 보던 같은 공간도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부서지는 나날>의 작업도 비슷한 시기에 그렸다. 당시 집 주변 공원을 많이 걷곤 하였었는데 매일 매일이 같은 날처럼 반복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을 공원의 작은 섬과 물그림자를 통해 기록했던 작업이다.

⁶ 김선지, 「비일상을 통해 발현된 유토피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



[작품 1] 흐어지는 시간, 2015,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작품 2] 부서지는 나날, 2015,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작품 3] 밤 풍경, 2018, 장지에 목탄, 가변크기(27x22cm, 30x21cm) 11 개

〈밤 풍경〉 연작은 작업실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며 보던 풍경들을 드로잉으로 옮긴 뒤 목탄이나 연필을 이용하여 작은 화판에 옮긴 작업이다. 이 작업들은 일반적인 밤 풍경에서 불빛과 그림자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 것들이다. 밤의 형상에 몰두하기보다는 빛과 공간을 옮기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해 본 작업이다. 현실 속 풍경을 표현하다 보면 공허해 보이는 풍경이 되고 연출된 것처럼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빛과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풍경이 연출한 장면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작업을 할 때, 목탄을 많이 사용하였다. 목탄은 연필처럼 기본 재료라고 생각한다. 목탄은 손 끝의 힘을 온전히 종이 위로 전달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돕는 재료라고 느꼈다. 그래서 본인은 주로 목탄을 힘을 쏟아내거나 강약을

주는 것을 그릴 때, 그리고 전체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였다. 목탄은 연약하여 쉽게 부서지곤 하지만 잘 활용하면 손 끝 힘을 집중하여 표현하기 좋은 재료라고 느꼈다. 그래서 본인은 드로잉 할 때에도 많이 이용하곤 했다. 작업을 할 소재를 발견하거나 어떤 느낌이 드는 곳에 있을 때, 최대한 드로잉을 통해 먼저 간결하게 전체윤곽을 드로잉 북에 그려 놓는 편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다시 그 장소에 돌아와 그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온다고 해도 그 시각 느꼈던 비슷한 감정이나 감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정 안될 경우에는 사진을 찍은 뒤 보고 그리기도 하는데 사진을 보고 드로잉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때 그 공간에서 느꼈던 느낌을 온전히 옮기기는 조금 힘들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힘이나 공기, 시간, 빛, 느낌, 바람, 그림자 등 많은 미세한 부분들을 다른 공간에서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 현장 드로잉을 통해 밑그림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놓곤 하였다.



[작품 4] 깊은 여름, 2018, 장지에 목탄, 연필, 53x45cm



[작품 5] 나무의 변집, 2018, 장지에 채색, 200×100cm

사람의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기계로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이 심미에 빠져들면 자연히 심미비판이 뒤따른다. 사람이 무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그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과정이 바로 심미이다. 무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동안의 습관적 시각 체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대상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화가는 바로 그런 심미적 감수성을 자신의 그림에 담아내는 사람이다.⁷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들, 등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나무의 변집>작업은 창문이 있는 흰 벽에 비친 큰 나무의 그림자를 관찰하여 그린 작업이다. 비춰진 창문 위에도 나무의 모습이 보였다. 매일 지나가던 학교 건물의 어느 벽 위로 비쳐진 그림자의 모습이였다. 조금 멀리서 보니 큰 나무의 모습이 벽 위로 그대로 비춰졌다.

⁷ 가오성 젠, 『창작에 대하여』, 박주은 역, 돌베개, 2013, p.236-237

큰 나무가 벽에 흘러내리는 듯이 나뭇잎의 모양이 그대로 벽에 새겨지듯이 생겼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흘러내리는 건 햇살의 반대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맑은 날 쨍한 햇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라서 본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나뭇잎이 조금 울적해 보였다. 맑은 햇살이 그대로 느껴져 기분 좋은 느낌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픈 느낌이 큰 나무 그림자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빛의 굴절이 일어나 유리창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의 모습과 벽에 비치는 나무그림자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유리창 속 그림자는 동글동글하게 물방울처럼 맺혀 있는 모양으로 생긴다. 유리라는 부드러운 보이는 재질 위로 서로 연결될 듯 연결되지 않는 또 다른 날카로운 특성이 보인다. 벽에 맺힌 그림자는 마치 햇빛을 머금은 나무가 반사되어 흘러내리는 듯하게 보인다. 그런 물리적 측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웬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지는 나무의 그림자였다.

본인은 아파트 고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시간 별, 계절 별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달랐다. 새벽과 낮의 거리, 폭풍우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바람이 불거나 함박눈이 쌓여가는 모습 등 뚜렷하게 보이는 시간의 변화가 흥미로웠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은 새가 아래로 향해 바라보는 것처럼⁸ 멀리서

⁸ 부감: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삼원: 동양화 산수화에 있어서 원근법과 화면의 구성원리. 고원(高遠), 심원(深遠), 평원(平遠)이라 말하고, 중국 북송의 광희(郭熙)가 지은 『임천고치집(林泉高致集)』에 나와있다. 밑에서 산정을 쳐다보는 법을 양시(仰視)라 하는데, 이는 고원에 속하며 우뚝 솟은(홀립) 기세를 나타내 준다. 심원에는 산골짜기를 통하여 후방을 엿보는 방법인 수평시(水平視)가 있으며 산들이 몇겹으로 포개져서 보인다. 평원은 가까운 산에서 먼산을 바라보는 방법인 부감(俯瞰)으로서 멀리 쳐다보는 효과가 있다. 모두 당대(唐代)에 시작되었다. 고원이나 심원은 섬서(陝西)·산서(山西)의 황토침식지대(黃土侵蝕地帶)의

불 때는 다들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생각은 또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안해 보이는 공원의 오후 풍경도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함께 시간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인에게 저녁 오후 해질녘은 흥미로운 시간이라고 느껴진다. 높은 층의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장난감 레고의 이야기를 바라보듯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현실과는 멀리 떨어진 일상처럼 관찰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인다. 오후는 특히 해가 지며 생기는 그림자가 멋지고 아파트로 인해 길게 그림자가 만들어져 멋지게 느껴지곤 했는데 그 옆으로 이야기하며 서있는 사람들 또한 긴 그림자가 만들어져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풍경을 그리는 데에 알맞아서, 신선산수(神仙山水)나 한발화(捍撥畫)에서 사용된다. 평원은 고래의 원상근하(遠上近下)의 부감도법(俯瞰圖法)에서 기원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소))



[작품 6] 오후 6시, 2018, 장지에 연필, 수묵, 30×21cm



[작품 7] 시선의 끝, 2018, 장지에 연필, 수묵, 145×336cm

〈오후 6시〉, 〈시선의 끝〉 작업은 연필과 수묵을 이용하여 그린 작업이다. 내가 주로 관찰하는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린 것인데 소소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 수평적 그림자가 저 있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이라서 아파트의 직선적인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집 앞 작은 길에서 만나 저녁거리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주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잠시 산책하는 듯한 젊은 새댁, 학원이 끝났는지 자전거를 타고 경쾌하게 달려가는 초등학생, 그 옆 반대편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느 청년의 모습과 놀이터에서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킥보드를 손에 잡고 보고 있는 어떤 어머니의 모습, 또 유모차를 끌며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아이와 가족의 모습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전거를 세워 두고 운동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까지의 모습이다. 작은 그림 속 각자만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각자만의 사정은 다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그저 지나가는 풍경처럼 작고 소소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공원의 어느 시간을 통해 작은 단편으로 드러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오후 6시〉를 보다 큰 화면으로 옮겨 그려 본 작업이 〈시선의 끝〉작업이다. 〈시선의 끝〉 그림 또한 연필과 수묵의 번짐을 통해 작업을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사람 개개인의 자세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자의 수직 수평적 느낌을 통해 거기에서 나오는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구성한 작업이다. 해가 지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모습을 큰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시선이 머무르는 곳〉, 〈나무의 귀〉작업은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오후를 그린 작업이다. 목탄과 연필을 사용하여 작업으로 옮겼다. 이 작업에서 보이는 풍경은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이라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다. <나무의 귀>작업은 자주 관찰하는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보였다. 공원에는 자전거 타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이 인형의 집처럼 어떤 멈춰져 있는 공간을 지나가고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가 저무는 오후는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느낀다. 중요한 것들은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그 순간에는 그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혹은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시간이 어느정도 흘렀을 때, 어느새 그 순간들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다. 하루의 중간 정도 지났을 무렵인 해가 지는 시간이 본인이 사유하는 지점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림에 유독 해가 지는 풍경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다.



[작품 8] 시선이 머무르는 곳, 2018, 장지에 목탄, 162×130cm

하루가 저물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아파트 화단에 가꾸어 놓은 나무와 풀들의 그림자도 흙과 타일 길 위로 길어졌다. 아침과 퇴근시간에 주로 다니시는 세탁소 아저씨의 자전거도 보인다. 저 멀리 있는 자전거 거치대 옆 가로등불은 아직 켜지지 않은 채로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의 모습이지만 길게 난 그림자가 평화를 깨뜨리는 듯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매일은 반복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해야 할 소중한 하루이다.



[작품 9] 나무의 귀, 2018, 장지에 목탄, 130×97cm

2. 일상 풍경의 시간성(밤과 낮의 풍경)

본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풍경들을 작업으로 옮긴다. 공간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바라본 풍경들의 모습이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모습의 느낌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표현하였다. 시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통속적 시간이라고 말한다. 본인은 같은 장소를 오랜 시간 바라보고 관찰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같은 곳이 다르게 보이는 때가 있었다. 언제나 이미 거기에(always-already-there)⁹ 있는 풍경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새로운 시선을 만든다. 일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소한 것들도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인식의 변화는 동일한 곳에서의 관찰을 통해서도 새로움을 느끼게끔 하는데, 현재의 자각을 통해 일상의 있는 그대로를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의미가 있다.

가까운 지인 가족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다. 매 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낀다. 모든 순간들이 모여면 시간이 된다. 순간은 존재의 깊이를 지닌다.¹⁰ 존재가 당연하게 있을 때에는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의 요소가 된다. 삶과 죽음은 서로 반대편처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또 삶과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유한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삶의 사소한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고, 남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일상에서의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고의 확장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함을 경험하였으며, 그동안의 작업과는 다르게 새로운

⁹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p.14

¹⁰ 한병철, 『시간의 향기』,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3, p. 59.

작업으로의 변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비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의 본인의 감정이나 태도,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같은 것도 더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일상은 비일상을 통해 드러난다. 비일상¹¹은 갑자기 생기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혹은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일로 인해 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주로 본인의 힘으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일 들만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평범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인 힘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비일상은 지금 현재의 삶을 다시 조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마음 자세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가치가 있다.

‘시간성’이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개념으로, 인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일상에 빠져 있는 실존의 상태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계적 시간이나 일직선상의 시간과 달리 미래의 죽음의 가능성을 현재에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¹²

많은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은 사회-시간과 시계-시간을 분류하였으며 많은 인류학자들은 전통사회에서의 사회적 시간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시계적

¹¹ 비일상 : 일상생활은 생활의 반복성, 항상성, 연속성을 뜻하는 바, 이에 대비되는 비일상생활은 생활의 비반복성, 비항상성, 비연속성을 뜻한다. (이정화, 『문화환경의 이해』, 2015, 커뮤니케이션북스)

¹²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성’의 개념을 요약, 인용한다. 추가로 하이데거는 거기-있음의 시간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테제를 발전시켰는데, 첫째는 시간성이 염려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탈자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그것이 미래에서 시원적으로 그 자체를 시간화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성은 과거-현재-미래의 객관적이고 일직선적 시간성의 지평에 대응하는 '시간성의 탈자들', 즉 과거완료, 현재, 미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¹³
세계에서의 모든 변화 및 무변화에서 유지되고 있는 어떤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편에서 말하면 시간은 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접점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달력이나 시계로 경험의 흐름을 근무시간과 휴식, 또는 파종기, 제초기, 수확기 등의 의미를 가진 단위로 분할하고 있다.¹⁴
시간은 인식하기에 따라 그 형태가 분류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은 동양 순환적 시간관인 원형적 시간관과 서양 진보적 역사관인 직선적 시간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형적 시간관은 불교의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순환되는 윤회사상을 따르는 전통적 시간관이다. 직선적 시간관은 탄생하고 죽음 후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면 끝나는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서구적 시간관이다. 본인의 작업에 표현된 것은 동양의 순환적 시간관에 가깝다.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고 또 다시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환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마주하다 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소중한 것들은 지루한 사소함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하루의 하루>는 그런 생각을 나타내는 작업이다. 매일의 반복되는 하루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구성하는 초, 분,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늘 똑 같은 것만 같은 순간들이 모여 일주일, 한 달, 일 년이 되어 한 사람의 시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¹³ 안주영, 「시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고찰- 전통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의 대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호, 2013, p.62

¹⁴ 종교학대사전의 정의로 바라본 시간의 정의를 나타낸다. 본인의 종교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생각과 비슷한 시간에 대한 문장들을 언급한다.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작품 10] 하루의 하루, 2018, 장지에 채색, 162×130cm

흔히들 나이가 들에 따라 시간이 더 빨리 흐르고 한 해가 달음질치듯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 강한 인상이 남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1년이 인생에서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언정 그건 어디까지나 기분에 불과할 뿐,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매시 매분의 길이는 늘 똑같으니 말이다.¹⁵ 그렇게 시간은 한정적이고 유한하다. 늘 똑같은 것만 같은 순간이 모여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된다.

해가 떠있는 시간 속 풍경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너무나 다르고 정의하기 새롭다. 해가 질 무렵의 하늘은 아름다우며 해가 지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해가 저물며 그려지는 하늘의 밝게 빛나는 색감이 세상 곳곳에 따뜻한 기운을 감돌게 한다. 해가 지면 달이 뜬다는 순리처럼 그 후로는 밤의 시간으로 접어든다. 어둠은 빛의 반대편 의미로 존재한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지만 각자의 반대편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빛과 어둠은 각자가 서로의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지만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햇빛에 의한 풍경과 어두운 밤에 바라보는 풍경은 같은 장소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낮의 길이>와 <되돌아보기>는 이러한 예시를 적절히 볼 수 있다. 비슷한 구도의 <성찰의 시선>도 함께 인용한다.

작품 <낮의 길이>와 <되돌아보기>, <성찰의 시선>은 같은 장소를 관찰하여 그린 작업이다. 본인은 한 장소를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작업으로 옮기는 편이다. 같은 곳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았다. 시간, 계절, 날씨 별로 보이는 것은 물론 느껴지는 것과 모습이 참 달랐다. <낮의 길이>는 우연히 생긴 가을날의 모습을 보고 드로잉을 하여 큰 작업으로 옮겨본 그림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덧 하루가 잘 지나갔음을 알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림 속 등장하는 홀로 걸어가는 사람과 그 옆으로 각기 다른

¹⁵ 올리버 색스, 『의식의 강』, 양병찬 역, 알마, 2018, p. 45-46.

나무들의 그림자가 생겼다.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보다 나무들의 그림자를 더 크고 짙은 색으로 그려 강조하였다. 나무는 폭발하는 듯한 이미지이며 사람은 마치 시계추처럼 작고 연약해 보인다. 편안한 공원 풍경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불안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해가 지나가고 있는 어느 오후의 시간이었다.



[작품 11] 낮의 길이, 2018, 장지에 채색, 130×97cm

<되돌아보기>작업은 한밤중 어느 날의 모습이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그 날의 일상을 회상하곤 한다. 오늘은 어떻게 보냈고 무얼 먹었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디를 다녀왔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싫지만 바쁜 일상에서 생각을 돌아보기는 쉽지 않다고 느낀다. 그래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도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화면을 액자로 구성하여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형식을 취한다.



[작품 12] 되돌아보기, 2018, 장지에 채색, 130×97cm

여름 밤의 저녁은 유독 정겹게 느껴지는데, 풀벌레 우는 소리와 매미가 밤늦도록 우는소리에 시끄럽기도 하다. 깊은 저녁, 적막 속 들리는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여름의 긴 낮시간만큼이나 길어지는 성찰의 시간을 바라는 마음이다. 지혜의 안목은 거리두기에서 온다. 사람과 사건은 한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고독감은 일종의 심미적 판단일 뿐 아니라 자기 삶에 건설적 동기가 될 수 있다.¹⁶ 이 작품에서는 빛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두운 화면의 부분마다 가로등 불이 길어지는 인위적인 모습을 통해 빛을 드러낸다. 희미한 불빛의 어두운 화면은 텅 빈 공원의 고독함을 더 돋보이도록 한다. 고독은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조건이다.¹⁷

본인은 종이의 표정변화와 발색이 마음에 들어 작업할 때에 한지의 종류인 장지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다. 장지 위로 여러 번 물감이 겹쳐져 쌓여도 색채들이 덮여 없어지지 않는다. 그 위로 쌓고 쌓여 층층이 색채가 겹쳐지며 만들어내는 겹의 색이 담백하고 자연스럽다고 느꼈다. 2018 년의 작업 <성찰의 시선>은 그런 장지의 성질을 활용한 작업이다. 위 글에서 언급한 작업들과 같은 장소를 그렸는데 각도가 조금 다른 공원의 모습이다.

¹⁶ 가오싱 쟈, 『창작에 대하여』, 박주은 역, 돌베개, 2013, p.428

¹⁷ 가오싱 쟈, 『창작에 대하여』, 박주은 역, 돌베개, 2013, p.428



[작품 13] 성찰의 시선, 2018, 장지에 채색, 117×91cm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길고 짧은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 길이의 그림자로 드러난다. 저녁시간으로 저물어 공원 옆 배드민턴장은 텅 비어 네트도 사람도 아무도 없다. 공허한 배드민턴장에서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흘러 하루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텅 빈 공터에 따뜻한 저녁 햇빛이 들어와 밝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다. 여름날은 보통 6시에서 7시 30분 정도까지 해가 아직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름의 밤은 붉다. 보통 여름의 저녁 8시쯤에는 해가 지기 시작하거나 막 졌을 무렵이 되는데, 다채로운 복숭아 빛으로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어간다. 하늘의 차분한 빛깔에 넉넉한 여유가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웬지 낮시간이 더 생긴 것처럼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지는 것을 느꼈다. 따스한 여유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림자를 통해 하루의 시간이 지나감을 느낄 수 있었던 때였다. 아래는 같은 공간도 다르게 바라보려고 노력한 본인의 생각과도 닮았기에 인용한 문장이다.

“나는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그리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면
매번 다르게 그릴 수 있을까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 알렉스 카츠(B.1927-)

길게 난 나무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루가 계속해서 순환하듯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으며 나 자신의 정원¹⁸을 일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¹⁸ 가오싱 쥘, 『창작에 대하여』, 박주은 역, 돌베개, 2013, p.238



[작품 14] 다시보기, 2018, 장지에 채색, 51×73cm



[작품 15] 다시보기의 드로잉, 2018, 종이에 펜, 18×25cm

<다시 보기>작업은 아빠와 아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을 보고 드로잉으로 옮긴 뒤 다시 큰 작업으로 옮겨보았다.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듯 보이는 부자의 모습 뒤로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옆으로 길게 늘어졌다. 공원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부자의 모습이 긴 그림자 때문에 긴장감 있게 느껴졌다. <아홉시 오십 분>작업 또한 그렇다. 초조함과 동시에 언제 깨어질 지 모르는 작은 평화를 느끼는 불안함이 느껴지는 작업이다 드로잉에서 보이는 긴 선들은 도로를 따라 세계 국기가 계양되어 있는 기둥들이다. 본인은 작품에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위해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는 비논리적으로 정렬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다시 보기의 드로잉>처럼 드로잉을 한 뒤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본 그림에서 생략하는 부분들도 있는 편이다.



[작품 16] 아홉시 오십분, 2018, 장지에 채색, 80×100cm

Ⅲ. 결론

본 논문은 주로 본인이 평소에 바라보는 풍경들로 비롯된 일상적 풍경 모습에 대해 관찰한 것들이다. 같은 곳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또 다른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흔하게 보이는 주변의 당연한 듯한 풍경들도 보는 이에 따라서 새롭게 구별 지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멀리 있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닌 본인 가까이 있는 것들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생겨나는 인식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상적인 풍경들에 시선을 주었다.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였다. 도시 속 자연의 모습과 빛의 유무에 따라 달라 보이는 풍경의 모습,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 집 앞의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공원, 매일 같이 걷는 길 등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져 있는 주변 풍경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 본인의 시각과 태도를 관찰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며 더 세심히 관찰하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무심했던 시간들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공간이 우리가 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작업 <흘어지는 시간>과 <부서지는 나날>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바라보는 것의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꼈다.

작품 <낮의 길이>와 <되돌아보기>, <성찰의 시선>을 통해서는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매일이 같은 날처럼 순환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관찰되는 것들은 매 순간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이라도 다른

감각을 일깨울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본인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풍경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작품과 함께 조금이나마 정리한 내용이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작업을 연장시키려고 하였으며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 더 구체적인 시간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나갈 수 있음을 느꼈다.

작업 과정에서 본인의 시야가 풍경과 시간속에서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극적인 태도와 자유롭지 못했던 시선을 나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음을 느꼈다. 풍경에 국한되어오던 드로잉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한 구체적인 어느 한 ‘시간’에 대해 연구하는 작품을 프로젝트 개념으로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끼고 관찰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은 결국에 본인의 체험과 경험에서 오는 것 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개념을 더 연결 지어 바라보는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본인만의 작업을 진행하며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보다 발전시켜 확장된 개념을 통해 작업을 구체화시키고 정리하며 구현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도서출판 푸른숲, 1997.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14.

정기간행물

안주영, 「시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고찰- 전통적 시간과 근대적 시간의 대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호, 2013.01, p.41~82.

여은희, 「조르조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와 초현실주의 무의식의 연관성 연구」, 『예술논집』 15,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2014, p.73~95.

학위 논문

이만나, 「일상의 단면을 통한 낮선 공간의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선지, 「비일상을 통해 발현된 유토피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번역서

가오싱 쟈, 『창작에 대하여』, 박주은 옮김, 들배계, 2013.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이윤기 역, 열린책들, 2000.

데이비드 베일즈, 테드 올랜드, 『ART & FEAR』 임경아 역, 루비박스, 2006.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박이소 역, 현실문화, 1997.

메를로 폰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올리버 색스, 『의식의 강』, 양병찬 역, 알마, 2018.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옮김, 열화당, 2000.

피에르 쌍소,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강주현 역, 공명, 2014.

한병철, 『시간의 향기』,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3.

ABSTRACT

Painting Study of Everyday Landscape and Passage of Time

**-With Focus on the Works of My Own
Creating-**

LEE, GA YOUNG

Dept. of Fine Arts

Oriental Pain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